



국제캠 절반 이행 소통 분야 으뜸 학업 분야 전무

박창원 기자 macpark342@khu.ac.kr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생회(총학) ‘위쿠맨’은 전체 27개 공약 중 13개(48%)를 이행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약은 3개(11%)이다. 나머지 11개 공약(41%)은 코로나 19와 기타 사유로 이행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총학이 이행한 공약 중 이행을 이 두드러지는 부문은 ‘소통’이다. 총학은 소통 관련 공약 7개 중 6개를 이행했으며, 1개 공약은 진행 중이다. 특히 총학은 “학생회 장학금 비리 실태조사 및 재발을 방지하고 감사기구를 창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약과 관련해 지난 8월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에서 ‘학생회칙 내 밝은사회장학금 관련 조항 추가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현재는 학생 총투표만 남겨두고 있다. 이는 지난 총학 선거 당시 ‘생명과학대학 밝은사회장학대리 수령 논란’이 일자 위쿠맨 선본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핵심 공약이다.

‘중운위 회의록 업로드’는 현재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민(원자력공학 2015) 국제캠 총학생회장은 “지금까지 회의 내용을 정리한 카드 뉴스나 제안서 등은 공개했지만 전문을 공개한 적은 없다”면서 “총선거 전에 일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업 분야에선 총 6개 공약 중 이행을 완료된 공약이 전무한 상태다. 총학이 학업 분야에서 주력한 것은 수강신청 문제다. 하지만 현재는 보완제도가 발의된 상태에만 머물러 있다. 국제캠 총학이 공약으로 제시한 ▲취소지연제 대기시간 단축 ▲수강신청 실패시 신청 가능 과목 시간대별 제시 ▲지연 대기과목 한 눈에 보기 기능 추가 등은 이행되지 않았다. 양성민 회장은 “학사지원팀과 열 차례 이상 논의를 진행했다”면서도 “트래픽 등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쩔 수 없는 제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수강신청 전 강의 소개 영상 및 미리보기를 제공하겠다”는 공약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양 회장은 “강의 소개 영상은 다수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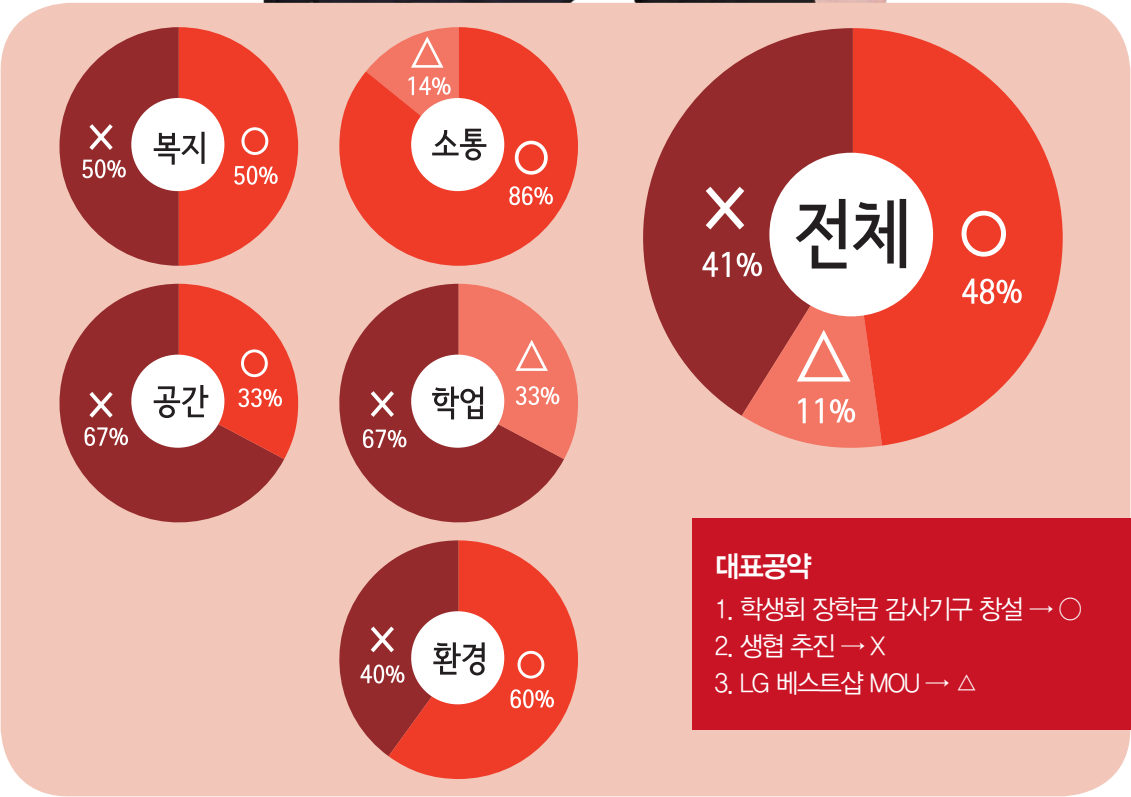
수님의 반발도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학사 관련 공약은 총학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정책과 관련된 협의체도 많아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학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 밝혔다.

복지 부문의 핵심 공약으로는 ‘LG 베스트샵과 MOU 체결’ 등이 있었다. 총학은 LG 베스트샵과 MOU 체결을 하지는 못했지만, 삼성 디지털프라자와 MOU를 체결하는 것으로 공약을 수정 이행했다. 또 다른 핵심 공약인 ‘생협 추진’은 실패로 돌아갔다. 코로나 19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고, GS25 등 외부기업이 이미 입점한 탓에 새로이 생협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 총학의 설명이다.

또 다른 복지 공약으로 내건 ▲학교 관련 시스템(KHU알리미, 경희톡, 중앙도서관, 시간표 및 식단표 등) 통합 ▲캠퍼스 내 유사 종교 전도 행위 방지에 관한 공약 역시 임기 내 이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 회장은 “연초부터 경희톡 공지 체계를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외주업체를 통해 앱을 운영하고 있어 변경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한편,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제캠 총학이 ‘이원화 인식 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것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도 제시된다. 양성민 회장은 “모 언론사에서 국제캠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로 보도하고 각종 사이트에 분교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활동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총학은 미래전략발전 TF를 구성해 국제캠과 관련해 잘못된 인식 등을 야기하는 사이트를 신고할 수 있는 신문고를 운영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 중이다.

양성민 회장은 “학생의 믿음 덕에 당선된 만큼 공약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려운 점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행하게 되지 못하는 공약이 생긴다면 숨기지 않고 소상히 밝히겠다”며 “임기가 끝나기 전 공약이행집을 발간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예매’는 예산 문제로 타격을 받으며 이행이 불가능해진 공약 중 하나다. 기존에는 생협 중앙지부에서 모바일 식권 예매 시스템을 제작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재정 악화로 인해 제작이 중단된 것이다. 총학은 “자치회비, 교비만으로 경희대학교만의 모바일 식권 예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생협 매점 24시간 운영’ 공약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시설 출입이 제한되면서 공약 이행에 차질을 빚었다. 최 회장은 “이미 학교 측과 매점 24시간 운영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약은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제캠 총학의 ‘도서관 사석화 및 장기공석 방지 시스템 추진’과 ‘단과대학 내 남·여 휴게실 설치’ 공약도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총학은 이미 키오스크가 설치된 중앙도

서관과 공과대학 열람실을 제외한 각 단과대학 열람실에 ‘키오스크 설치 지원 사업’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예산 문제가 발생했고, 사업은 불가능하게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국제캠 총학에 따르면 ‘단과대학 내 남·여 휴게실 설치’ 또한 비슷한 이유로 인해 이행이 불가능했다. 양성민 회장은 “코로나19로 학교 재정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한 대당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키오스크 설치를 위한 사업 진행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휴게실 설치에 따른 공간 확보 비용도 확보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과대학은 우정원 리모델링이 종료되면서 일부 교수 연구실이 우정원으로 이전을 앞둔 상황이라 추후 공간 확보가 가능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양캠 총학이 합동으로 진행한 여러 활동은 유의미한 결과를 남기도 했다. 양캠 총

학은 ▲등록금 반환 시위 ▲등록금 관련 회의체 및 협의체 활동 ▲총장실 항의 방문 ▲본관 무기한 대기 ▲등록금 반환 회의 등으로 실납부액의 5%를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초과학기 납부자 등이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양캠 총학은 “아쉬움은 많이 남지만, 앞으로도 학생 권리보장을 위해 힘을 것”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양캠 총학의 임기는 앞으로 두 달 남짓 남아있다. 서울캠 총학 무빙은 “코로나19로 인해 ‘무빙’이라는 학생회 기조에 걸맞는 변화를 다 이끌어 내진 못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끝까지 남은 공약과 일정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국제캠 총학 위쿠맨 또한 “여러 제약이 많음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학생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